

광주시 '통합 돌봄' 구축 위기 상황 긴급 돌봄으로

광주시·시의회 시민토론회 돌봄 사각지대 대안 마련 논의 시, 자치구 추진 계획에 반영

광주시가 모든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15일 시의회에서 시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5대 영역 구분에서 발생한 틈새를 7대 돌봄으로, 위기 상황은 긴급 돌봄으로 채우는 통합 돌봄 모형을 설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마련과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 서비스를 실행하는 민간기관 간의 소통 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이라는 통합 돌봄의 기본 원칙에 공감한다"며 "시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면서 주민등록 주소 등 유연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13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 회의를 운영하고 자치구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고, 이날 시민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시와 자치구 추진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운영지침 마련,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에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월요 대화' 행사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생애 첫 김치 담기 15일 광주 북구 운암2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전통으로 맛을 내고 세대가 함께 버무린다'라는 주제로 열린 김장 나눔 행사에서 문인북구청장과 자생단체회원, 금호중앙중학교 학생, 어린이집 아이들이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자동차 단조 휠 산업 육성 속도

'생태계 구축' 보고회...30% 경량화·중국 의존도 완화 목표

전남도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높은 연비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 경량 단조 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산 휠이 주조 휠이 많은데다 단조 휠 공급을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최근 자동차 단조 휠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휠 부품 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기획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친환경, 고급형, 고성능 차량에 적용되는 단조 휠은 주조 휠에 비해 조직이 치밀해 강도는 더 높고 최대 30% 경량화가 가능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지역 내 친환경, 고성능 경량 단조 휠 시제작 인프라 구축 및 신뢰성 평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내 휠 업체 중심의 산학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단조 휠 제작사업에 접근하지 못

한 국내 업체들이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체의 높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다.

보고회에는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장, 휠 산업 관련 전문가 위원, 과제 수행기관인 목포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목포대의 국내의 단조 휠 산업 현황, 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전략, 사업의 기대효과 등 수행결과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과 논의사항을 담아 결과물을 보완해 11월께 기획과제를 최종 완료하고 기획안을 활용해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최근 전기차 시대 전환 가속화로 친환경 경량 휠 수요가 늘고 있다"며 "국내 유일 단조 휠 제조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 "광주형 관광콘텐츠 보여달라"

광주관광재단 현장 업무보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광주관광재단을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광주관광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관광진흥 및 기반조성 ▲국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 ▲지속 가능한 관광·마이스산업 육성 ▲광주만의 관광 콘텐츠 발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 시장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행력 있는 관광정책 제안과 관광 협력체계 내실화, 매력적인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적으로 주문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강 시장은 "현재 광주관광의 현황, 민간과 공공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빅데이터 등에 기반해 광주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광주의 스토리를 활용해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다시 찾는 광주가 되도록 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현안업무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도시공사,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대행

광주 도시공사는 도로교통공단과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국비 290억원을 투입해 북구 삼각동 4만210㎡에 업무·시험 시설, 기능시험장 등을 갖춘 운전면허시험장 조성하는 사업을 대행한다.

도시공사는 연내에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하고 내

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없었던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귀어학교, 전국 첫 총동문회



개교 2주년...110명 수료생 배출 10일간 현장 기술 전수 실습 등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장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귀어에 기여한 전남귀어학교가 '제1회 총동문회'를 열어 선배들이 후배들의 성공적 어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귀어학교 개교 2주년을 맞아 개최된 총동문회는 14일부터 열흘간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수료생 간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귀어학교는 현재까지 7기 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은 ▲선후배 간 귀어 경험

담 공유와 성공전략 토론 ▲귀어학교 수료자 어촌 정착기 소개 ▲귀어 성공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과 현장기술 전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현장실습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 11개 사업장에서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수산 가공 분야 등 업종별 선도 어가와 1대1 매칭을 통해 핵심 경영 기술을 전수받는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국 귀어학교 중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선배의 어촌살이 경험을 통한 후배의 시향착오 최소화에 목적을 뒀다"며 "교육에서 정착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귀어자의 성공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함께하는 달빛동맹 연합번제 이야기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합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22.11.19 SAT - 11.20 SUN

11월 19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 ~ 17:00	탐방 프로그램 (ACC, DJ센터)
	Part2. 달빛나눔	16:00 ~ 18:00	개막식 / 멘토톡방 / 달빛콘서트 (무등파크광주)
11월 20일(일)	Part3. 달빛기쁨	10:00 ~ 15:00	투어 프로그램 (자산유원지, 양림동)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1월 15일까지)
대상: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종사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 많은 대학생 및 일반시민 (20~39세) 모집인원: 선착순 80명
참가비: 없음(기념품증정) 참가방법: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 CITY**